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0월호
2011

편집 사고

항상 광야의 소리에 좋은 글을 보내주고 계신 이정길 명예교수님께서 메일을 보내오셔서 뒤늦게 교수님의 글 가운데 끝부분이 잘려나간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교수님과 광야의 소리 독자 여러분께 편집자로서 사과를 드리며 지난 호 잘려나간 부분을 첨가해서 전문을 본 호에 다시 게재합니다.

조나단 리의 첼로 연주



지난 10월 2일 Popejoy Hall에서 첼로를 연주한 조나단 리(Jonathan Lee)의 사진
(관련 기사는 3페이지로)

New Mexico in Korean Wikipedia

(http://ko.wikipedia.org/wiki/뉴멕시코_주)



세계적인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뉴멕시코 주 소개가 나왔습니다. 특히 광야의 소리에 원고를 기고하시는 이경화 장로님께서 만드셨기에 이번 호에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13페이지에서 계속)

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김치축제 단체사진)

2011년 9월24일 제 4회 김치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해에도 많은 교민들의 후원으로 풍성한 음식과 다양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충이 되고 행사가 잘 자리잡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참여로 이번 행사에서 총 \$4,636의 수익금이 얻어졌습니다. 한인회 운영에 잘 사용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5주전부터 음식 및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하신 분들: 지역 목회자 협의회, 한인 천주교회, UNM 한국학생회, 아리랑 마켓, 킴스마켓, A1 마켓, 여미 하우스, 홍타오 월남식당, 사쿠라식당, 조규자, 김영신, 임낸시, 최진, 민명희, 김길자, 양태열, 박달규.



김치축제에서 전통한례예식을 선보인
한국학교 교사 부부

한글학교 알림

'한글로 된 도서 수집합니다.'

한국학교에서는 한글수업을 끝내고 한글로 된 책을 한 권씩 빌려주어 집에서 엄마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 가정에 안 보시는 책이 있으시면 한국학교로 기증해 주십시오. 매주 한국학교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더 다양한 책들을 빌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00- 오후 12:30 까지 수업을 하고 있으니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학교 이선아 교장



블랙맨 태권도장의 어린이 시범팀과



한국학교 김치축제 현장학습에서 한국문화와 악기 연주를 보여 주는 이선아 교장과 학생들



한국학교 교사 및 학생들의 '강강수월래' 시범



다양한 김치들을 시식하고 있는 교민들과 시민들

* 자세한 사진들을 보시기 원하시면 한인회 웹사이트 <http://www.kaanm.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및 임원일동)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정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조나단 리의 첼로 연주

지난 10월2일 뉴멕시코 대학에 있는 평조이홀(Popejoy Hall)에서 알버커키 유스심포니(AYS=Albuquerque Youth Symphony)의 2011년 첫 연주회가 있었다. 이 연주회의 주인공은 다른 아님 이재원씨의 큰 아들 조나단 리(Jonathan Lee)였다. 라쿠에바(La Cueva) 고등학교 학생인 조나단 리는 이 연주회의 솔로연주자로 선발되어 유스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훌륭하게 연주해냈다. 이 곡은 협주곡과 유사한 형식으로 작곡된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원래 연주하기 어려운 곡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많은 첼리스트가 두려워하는 곡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조나단 학생은 풍부한 음악적 표현과 손색 없는 기교로 그 곡을 잘 처리해 내어 천여 명의 관객을 감동시켰다.



알버커키 저널(Albuquerque Journal) 9월 25일자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조나단이 이날 연주회에서 사용한 악기는 어느 시민이 조나단의 연주를 위해 빌려준 악기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첼로 악기였다고 한다. ‘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파블로 카살스(Pablo Casals)가 유럽의 여러 연주회에서 사용했던 Januarius Gagliano 첼로 인 것이다.

조나단의 개인지도를 해온 UNM 음악대학 첼로 교수인 데이빗 셀프스(David Schepps) 교수는 “조나단은 그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의 하나이며 그의 풍부한 음악적 표현력과 그가 가진 예리한 귀가 그의 강점이 된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풀든의 지휘로 연주된 이 날 AYS연주회에서 조나단은 그의 솔로 연주 후에 원래의 단원의 자리로 돌아가 함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전 악장을 연주했다.

조나단의 아버지는 이재원씨(샌디아연구소 엔지니어)이고 어머니 출래니리는 바이올린 연주가이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이경화 장로와 이옥주 권사이다.

김영신 이사장, 한상민 부이사장 선출

9월10일 임시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김영신씨, 부이사장으로 한상민씨가 선출되었습니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수고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뉴 멕시코 한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멕시코 주 한인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영신입니다. 적은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이지만 ‘나는 한인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자세로 한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인 여러분들의 격려 또한 부탁드리며 모든 한인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편안하고 또한 뜻깊은 한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김영신 이사장

Email: yongfre@yahoo.com

Ph#: (505)321-7695

Dear Community:

It is truly an honor to be able to serve the Korean community in the State of New Mexico. I recognize many prominent leaders in our community and their leadership, and I find it humbling to assume the vice chair's responsibility. I envision that this would be a journey of learning and serving many in our community, who tirelessly work towards our common good. I wish to draw upon our community's strengths to broadcast our service, to help promote both young and experienced members for their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growth, and to elevate our visibility amongst many ethnic communities within New Mexico. If you wish to joint this effort,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t sangmhan@live.com.

Sang M. Han(한상민)

Vice-Chair Elect.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주부 무용단 모집

한국무용수업

대상: 주부 및 모든 여성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11시까지 한인회에서 모입니다.

1달 \$ 45

장소 : 한인회

강사: 이선아 (한인회 예술부장) 리틀 엔젤스, '르' 무용단, 서울 시립 무용단 활동, 경희 대학교 무용과 졸업, 김백봉 무용단 활동, 뉴멕시코 대학 무용 대학원 졸업

문의사항: 이선아 505-828-0306, 505-515-4211, 김두남 505-270-1984

e-mail: ninosophia@hotmail.com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7.95

삼선짬뽕 \$7.95

해물탕면 \$7.95

다섯가지 냉채 \$29.95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7.95

탕수우육 \$10.95

양장피 잡채 \$15.95

-예세이-

수확의 계절에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부자가 되려거든 농부가 되어라.'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말이었다. 투자의 귀재에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미국 재계의 제1인자 중 한 사람인 짐 로저스가 한 말이 2011년 7월 11일자 타임에 실렸다. 최근 많이 올라버린 식품가격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지만, 로저스는 앞으로 몇십년 동안 농업부문의 수입이 급격하게, 월가까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산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지금은 은행가가 아니라 농부가 더 많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전세계가 심각한 식량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을 농업으로 이끄는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한적한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농사꾼들의 어려움을 수없이 보며 자랐다. 1950, 60년대의 농촌은 가난의 대명사였으며, 농촌생활은 고달픔의 다른 표현이었다. 뼈빠지게 일해도 생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그래도 형편이 나아서 상여금에 커다란 황소를 두고, 집 뒤 켄의 우리에 암퇘지를 기르고 있었다. 태산보다 높다는 보릿고개를 넘기고, 여름의 무더위를 난 다음,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가을걷이가 끝나면 잘 갈무리해둔 곡식으로 긴 겨울을 나고는 했다.

올 들어 유난히 심했던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가을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연례행사를 잊지 않고 마련해주었다.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그지없이 상쾌한 날씨에 수많은 지역축제 그리고 현실적인 풍요 때문에 뉴멕시코 주에서는 9월을 상달이라 부른다. 앨버커키에도 불박이 농산물시장에 더해 곳곳에 임시농산물장터가 열리고, 느긋한 마음으로 돌아다녀보면 시인들이 '세 자매'라고 부르는 옥수수와 파란 콩 그리고 애호박이 토마토, 고추와 함께 넘쳐난다. 9월은 농부들에게는 바쁘면서도 보상 받는 시기다. 추수의 계절에는 모든 희망과 믿음을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씨를 심으며 아주 잘 자라주기를 바랜 다음 그에 대한 보상을 거두어들이는 때인 것이다. 아울러 잘 못한 일과 잘한 일을 돌아켜보고, 다음 해에 할 일들을 생각하는 때다.

어렵기만 하던 한국의 농촌생활이 녹색혁명을 계기로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벼의 수확량이 급격하게 늘어 자급자족하기에 이르렀고, 주요 가축의 집단사육방법이 도입되어 육류도 훨씬 더 많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서방 선진국에서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농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가끔씩 나타나 더 고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기술이 놀랄만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서, 자원이 많지 않고 땅도 좁은 처지에 중농정책을 유지하다가는 나라가 덜나고 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공업분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해마다 모든 이에게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주던 추석은 구정과 함께 큰 명절로 끊끗하게 살아남았다. 거의 모두가 조상전래로 농촌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라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마음으로 대자연에 감사하고 조상의 은공을 가슴에 새긴다.

미국의 심장 지대가 돈을 퍼 올리는 펌프의 역할을 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었고, 고용의 주요한 원천이었던 것은 그보다 더 오래 전의 일이었다. 가족들이, 아니 미국 전체가 계속해서 떠나는 바람에 오래된 농촌 마을들이 텅 비어버렸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기술, 서비스분야의 직업, 금융 등이 경제의 기간을 이루면서 정부의 보조, 규제의 완화, 자선음악회의 지원이나 받아 연명하는 소위 '보호동물 종'이 되어버렸던 농업은, 지난 수년 동안 중국과 인도 같은 부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배가 고픈 시장과 생물연료의 블에 힘입어 다시 한 번 고도성장산업이 되었다. 미국의 경제가 성장률 1.9퍼센트로 휘청거리고 있을 때인 2010년에 농가의 순수익은 27퍼센트에 달했고, 2011년에는 거기에 다시 20퍼센트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꼭창지대인 중부 네브래스카 주나 아이오와 주의 실업률은 전국평균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농자천하지대본은 어릴 적부터 내 머릿속에 박혀있다. 농심을 가지고 행하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以農心行 無不成事〕고

배우기도 했다. 농사꾼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정직을 배운다. 씨를 뿌리고 난 후 싹트고 자라서 열매가 열려 거둘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지혜도 터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두어들인 후에는 반드시 지나간 일을 돌아켜 생각해보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농심에는 근면, 정직, 기다리는 지혜 그리고 회고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천하에 못 이를 일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어릴 적에 느끼던 순박한 농촌인심이 농심이다.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면서도 끼니때 맞춰 찾아 든 걸인을 그냥 들려보내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때늦게 손님이 오면 이내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성의껏 차린 상이 들려나간다. 혼인과 초상은 온 동네의 일이었다. 힘 드는 일을 서로 거들어 해내는 품앗이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 이바지가 들어오거나 조금이라도 색다른 음식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이웃과 나눠 먹었다. 그 옛 마을에는 초등학교 동창 종평, 수남, 채식, 재정이 지금도 살고 있어, 그들은 필시 태 자리에 뼈를 묻게 되리라. 그때 그 훈훈한 인심이 자꾸만 그리워지는 건 나의 탓인가.

-지난 호 에세이-

경험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각자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 경험은 몸소 겪고 치러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때때로 경험에 의해 얻은 지식,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 장기간에 걸친 견문 등을 뜻하는 말로도 쓰여서 경험이 풍부하다고도 하고, 경험을 살린다고도 한다. 사물현상 즉 감각이나 지각작용에 의해서만 깨닫게 되는 객관적 대상을 놓고 볼 때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지식, 진리는 지각적 경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진리도 물질에서 진화되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독특한 경험이 인류의 유전자 속에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삶은 경험의 연속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그만큼 경험이 풍부해진다. 경험은 기억을 발생시키며, 수많은 기억들 중에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나에게는 참척을 당한 경험이 있다.

가슴 속에 묻어두는 것 말고는 달리 어찌해볼 수가 없었던 그 경험은 살아있는 동안 나와 함께하다가 무덤 까지 갈 것이다. 이런저런 일을 수없이 겪다 보면 흔히 주변상황에서 분리되거나 초연해지게 되는데, 초연해지는 것이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고, 그래서 상황의 흐름에 몸을 내맡기는 법을 배워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혜로워졌음을 의미한다. 나이 든 사람은 또 과거의 경험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젊은 사람에 비하여 나을 수 있다.

전신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1899년 심리학회지에 실리면서부터 '10년의 법칙'은 인간이 복잡한 일에 숙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라고 널리 인정되어 왔다. 서양 장기시합의 결승전에서 이기려면 적어도 10년은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는 권위자들의 영향력 있는 논문이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에 실린 1973년부터는 전문가의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험의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고, 그 후 30여 년에 걸친 전문가의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결과는 경험 그 자체, 예를 들어 뇌수술이나 스키처럼 특정한 기능에 숙달되기 위하여 소비한 시간의 양은 실제로 탁월한 수행능력을 재현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그러한 연구결과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것이 곧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경험과 탁월한 기능을 겸비한 전문수행능력자는 그래서 전문가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자기분야에서는 훌륭한 재능을 발휘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일반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경험은 전문수행능력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행한다. 그 예를 우리는 운전에서 볼 수 있는데,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디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때도 가끔 있다. 그리고 경험은 또 사람을 과신으로 이끌어서, 경주용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유자들이 일반운전자들보다 더 많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만사를 배우는 방법은 직접경험이 으뜸이라 했고, 배우는 데는 실패가 성공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정설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모두가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55세 이상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저지르는 교통위반의 35퍼센트가 선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25퍼센트가 좌회전을 잘못하는 것으로 집계된 사실은 지금까지 발표된 경험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최상의 수행능력은 단순한 경험에서가 아니라 전력을 다하는 꾀 나는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쉽게 느껴지면 그것은 타성이지 향상은 아님을 바로 알아차

려야 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연구결과들은 나이 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사람에게는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에드워드 머로우가 남긴 "인간은 누구나 자기자신의 경험의 노예다."라는 말은 70을 넘긴 나 같은 사람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인 것만 같다.

의자에 조용하게 앉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그저 그대로 의식하기만 하는 법을 배우면 세상이 거리낌없이 가면을 벗고 당신 앞에 스스로를 드러낸다. 느낌에서 어떤 변화를 찾으려 하지 않고, 생각은 마치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인양 들으며 앉아있으면, 시끄러운 소리나 흐린 흙탕물이 그대로 놔두면 마침내 고요해지고 맑아지듯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경험에서라야 참된 지혜가 터득된다. 노년은 세상 너머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 아니던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찰자와 관찰이라는 과정 그리고 관찰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최상의 경험이 된다. 보는 사람과 그가 보는 광경은 하나이며, 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질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종교에 예비된 이런 경험을 '일체성 의식'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과학에는 그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부르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 모두가 겉모습만 다른 동일한 존재라는 경험이야말로 지고한 사랑이라 일컬어 마땅하다.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18

베트남 스프링롤



ABQ가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됨

ABQJournal.com/biz

알버커키저널 2011.9.23

ALBUQUERQUE JOURNAL

'Best Cities' Lists ABQ

Magazine Ranks
City at No. 15.

BY RIVKELA BRODSKY
Journal Staff Writer

More props for the Duke
City.
Albuquerque was listed 15th
among America's 50 Best Cities,
according to a Bloomberg

at 49 and Denver at 27.

No. 1 was Raleigh, N.C., and

No. 50 was Irving, Texas.

"We're one of the great run-

ning through all the Sandia

Mountains to the east. New

Mexico's largest city is a pic-

turesque and sunny place to

live. The schools are great,

unemployment is low, and

Albuquerque has lots of park

areas per person," the listing

These articles ... will cer-

tainly intrigue people to

consider Albuquerque for a

vacation or a meeting des-

tination," said Jim Johnson,

president and CEO of the

Albuquerque Convention &

Visitors Bureau.

Businessweek.com evalua-

ted 100 of the country's larg-

est cities based on "a range of

positive metrics, including

ies and professional spec-

teams; the income, power,

unemployment, crime and

foreclosure rates; percent

of population with college

degrees or higher; per-

school performance; pe-

acres per 1,000 residents;

air quality, according to

the story. Affordability was a

factor.

알버커키 다운타운



알버커키가 미국내의 50개의 살기 좋은 도시중에서 15번째의 살기 좋은 도시(Best Cities)로 뽑혔다고 2011년 9월23일자 알버커키 저널에 브로드스키 기자에 의해 보도 되었다. 블룸버그 비지니스 위크(Bloomberg Businessweek)에서 선정한 결과에 의하면 알버커키가 14번째의 뉴욕과 16번째의 보스톤 사이에 들어갔다. 이는 40번째 순위에 오른 피닉스(Phoenix)나 27번째의 덴버(Denver)보다 높다.

"리오 그란데강이 흐르고 샌디아산이 동쪽에 있고 햇빛이 밝은 경치 좋은 뉴멕시코에서 제일 큰 도시이며 인구당 공원 면적이 넓으며 실업률이 낮고 좋은 공립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랭킹을 얻게 되었다"라고 비지니스 위크는 설명하고 있다.

Businessweek.com에서 100개의 미국내의 대도시를 비교해서 순위를 정했는데 그 기준은 도시생활의 질에 두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나 많은 도서관, 박물관, 대학, 식당, 스포츠 팀이 있으며 또 시민의 소득, 극빈자, 실업률, 범죄율, 부동

산 융자 월부를 감당 못해서 생기는 반환권 상실(Foreclosure)비율, 시민의 교육수준, 공립학교 평가, 1000명의 시민당 활동된 공원의 면적, 공기의 오염도등이 랭킹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

100개의 도시중에 바닥에 들어간 도시는 디트로이트(Detroit); 스타恸(Stockton, Calif.); 에크론(Akron, Ohio); 라레도(Laredo, Texas)와 클리브랜드(Cleveland)가 되었다고 한다. 상세한것은 인터넷의 businessweek.com을 들어가 보면 알수 있게 된다. 상위권에 든 도시를 순위대로 보면 아래와 같다. (1)랄리(Laleigh, N.C.) (2)아링تون(Arlington, Va.) (3)호노룰루 (4)스칼스데일(Scottsdale A.Z.) (5)어바인(Irvine C.A.) (6) 워싱턴 DC (7) 샌디에고(San Diego) (8)버지니아비치 (9)산 프란시스코 (10)앵커리지 (11)프라노(Plano T.X.) (12)오스틴(Austin T.X.) (13)시에틀 (14)뉴욕 (15)알버커키 (16)보스톤 (17)매디슨(Madison, W.C.) (18)콜로라도스프링…(53)로스엔젤러스(L.A.)

세계적으로 유명한 Concert Hall

김준호 장로

우리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나도 독자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다. 그런데 이 음악을 라디오로 들을 때와 음향이 제대로 구비된 음악 감상실에서 들을 때 그 음악이 풍기는 향기는 좀 다른데 하늘과 땅의 차이라면 좀 과장한 것 아닐까 생각 된다. 그래서 음악 감상은 주관적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다고 만 할 수 없다는 것이 경험 많은 자들의 중론이다. 3년 전에 동 유럽 관광을 갔던 적이 있다. 여러 곳에서 유명했던 많은 음악가들의 묘들이며 유적들을 보았다. 베토벤의 비석 앞에 어떤 젊은이가 앉아서 묵상(?)하는 모습도 보았다. 이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멘또),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꽁지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젊은이를 바라보며 나는 감탄했다. 위대한 명곡들을 남긴 사람을 기억하며 명상을 하는 것이다.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또 어떤 아침에 성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예배가 진행되며 음악이 연주되는 것을 들었다. 야! 이게 뭐냐! 그때까지 전연 느껴보지 못했던 웅장함과 압박해 오는 긴장감등 나는 그 아름다운 선율에 매혹되고 말았었다. 아주 도취되었던 것이다. 우리 부부만 갔었던 것이 아니고 일행이 있었으니 무한정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조금 더 들었어야 직성이 풀렸을 터인데 하고 지금도 가끔 생각 한다. 모르기는 하지만 그런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닐 줄 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깝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여기 알버커키를 떠난 분들이 꽤 많다. 그들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보고 싶은 생각이 난다. 속으로 그들도 우리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그리워할까? 아니지. 바쁘게 살고 있을 테니. 아닐 거야. 이럴 때 내가 부르는 노래가 있다. “분홍 팀스틱” 나는 이 노래를 “광복절 특사”라는 드라마에서 들었는데 좀 매력이 있다고 느꼈다. 나는 이 가사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었다. 하도 답답해서 영어로는 무어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May be “Pink lipstick”이라고 하고 우리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빠, Pink lipstick?” “Are you looking for a song called pink lipstick?” 차마 아버지에게 “You are crazy”라고는 못하고 좀 한심스럽다는 눈치였다. 그래도 나는 여기 저기 뒤지다가 결국 Yahoo Korea에 들어가서 강 애리자가 부르는 것을 찾았고 가사도 알게 되었다. 테이프로 녹음도 해서 멀리 운전할 때 가끔 틀고 같이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가끔 텐버에 여행을 가면 최전영 장로님 댁 심방을(?) 가는데 의례히 이 노래를 부른다. 정혜영 집사님이 피아노를 아주 잘 치시니까 안성맞춤이다. 그 두 분이 텐버 한인 합창단 멤버로도 활약하므로 함께 부르면 아주 신난다. 한 곡 가지고는 성이 안 차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하고 “별” 3곡을 부르곤 한다.

우리들이 관광 가면 무엇을 보러 가는지 상상할 수가 있다. 몇 백 년을 걸려서 건축한 고딕 건축물, 아름다운 자연풍경, 도시풍경 또는 정교하게 장식된 내부시설 미술작품들 ----- . 참으로 유럽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만들어진 유적들이 많다. 관광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웅장한 건물, 실물과 꼭 같은 동상, 아름다운 궁전들, 살아서 숨 쉬는 듯한 조각상들. 이태리 씨스타인 채플 천정에 그려진 기막힌 작품들. 어떤 때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감탄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소개 하려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했던 관광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소문난 Concert Hall들을 소개하고 혹시나 독자들 가운데 그런 음악회관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이사현 회장(505-271-8031)

월요일: 매월 세 번째주 금요일 오후 7:00 pm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주기도회: 매주 505-239-4401

성서모임: 매주 505-515-4211

뉴멕시코 성경교회

박종철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도강국 목사님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이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김의석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Tue-Fri)

성경공부 §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기기진 목사님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1:00 am (Sun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파밍تون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진경인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정렬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 시간: 오전 11:00 am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238-3551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시간: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많은 현대 작곡가들, 음악평론가들, 지휘자들 과 연주자들 그리고 일반 음악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세계 제일의 Concert Hall(음악회관)들은 다음과 같다고 Leo Beranek박사가 발표했는데 세계 전역에 많이 알려진 100여개의 음악 회관들을 직접 방문하고 또 직접 가서 듣기도 하고 그곳에서 지휘하고 연주했던 분들, 또 일반 청취자들과 대담을 해서 추리고 또 추린 것이다.

첫 번째가 Vienna에 있는 Grosser Musikvereinssall, built in 1870 (Vienna Hall),



1) Vienna Concert Hall built in 1870

두 번째가 Leipzig에 있는 Gewandhaus (Leipzig Hall, 1885),



2) Leipzig Hall, 1885

세번째가 Amsterdam에 있는 Concertgebauw (Amsterdam Hall, 1895),



3) Amsterdam Hall, 1895

네 번째가 Boston에 있는 Boston Symphony Hall (Symphony Hall, 1900) 등이다.



4) Boston Symphony Hall, 1900

이 음악회관들이 건축된 때는 모두가 음향공학이 발달되기 훨씬 전이다. 현재는 음향공학도 많이 발달되어 방의 구조, 크기, 벽면의 재료와 처리 방법, 직사파와 반사파와의 상호관계, 잔향 계수 등의 영향이 아주 복잡하지만 그것들을 분석도 할 수 있고 여러 parameter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건축된 음악회관들은 왜 옛날에 건축된 회관 만큼 좋은 음향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인지 큰 의혹 중의 하나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Violin에도 있다. Violin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대개 Stradivarius violin이 참으로 좋은 소리를 낸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현재 그 Violin 값이 수백만 불이라고 한다. 이 사실을 안 한 과학자는 그 violin과 요새 만들어진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연구를 하게 되었는

데 아주 재미있는 것을 찾아 낸 것이다. 이과학자는 이를 Violin들의 frequency spectrum을 분석 했는데 Stradivarius violin은 주파수 대역중에 3000Hz에서 6000Hz 사이의 Harmonics들이 아주 균등하게 분포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요새 만들어진 Violin들은 3000Hz 보다 훨씬 낮은 데서 시작하고 Harmonics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 다른 과학자는 이를 Violin들에 Xray를 투과시켜 보았는데 비싼 Violin의 나무 밀도가 크고 uniform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비싼 Violin을 만든 사람이 Antonio Stradivari(1644-1737년)인데 그가 살았던 1645년부터 1750년까지 유럽에 Little Ice Age가 와서 몹시 추웠다고 한다. 이것이 violin sound board 나무의 밀도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 우리들이 제 아무리 나무를 다시 개발해도 Antonio가 썼던 나무는 다시 찾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내가 듣기로는 유명한 Violinist Itzhak Perlman이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Antonio Stradivari는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들을 식별 할 수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나무를 택해서 사용했을 터이니 그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비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다. 다시 음악회관 이야기로 돌아가서 상기한 Hall 들의 중요한 측정치들을 추려서 도표로 만들었다.

World Best Concert Hall's Technical Details

Name of Hall (year)	Size (HxWxD, ft)	Volume (ft ³)	Seat Area (ft ²)	Number of Seats	RT (500-1000 Hz) (Reverberation Time, Seconds)	ITDG (Initial Time Delay Gap, milliseconds)	S/N (ft ²)
Vienna (1870)	57x65x132 (1:1.14:2.32)	530,000	10,600	1,680	2.05	12	6.3
Leipzig (1885)	51x72x108 (1:1.41:2.11)	375,000	9,750	1,560	1.55	8	6.3
Amsterdam (1895)	56x91x84 (1:1.63:1.5)	663,000	12,200	2,206	2.0	21	5.5
Boston Symphony (1900)	44x129x144 (1:2.93:3.27)	662,000	15,000	2,631	1.8	15	5.7
KUMC Sanctuary (2003)	20x32x48 (1:1.6:2.4)	30,000	1,080	120	0.94	Not measured	9
KUMC Sanctuary (acoustic improvement)	20x32x48 (1:1.6:2.4)	30,000	1,080	120	1.3 * (estimated)	Not measured	9
Solomon's Temple (B.C. 959)	45x30x60 (1:0.66:1.33)	81,000	1,800	No seat	3-4 (guess)	Not measured	

*If we add same ceiling panel material 24 feet more at the podium area, we may achieve 1.3 second RT which creates a most desirable sound field and an optimum reverberation period. Can you believe that world best concert hall in Albuquerque?

이 도표에 수록한 수치들은 각 음악회관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만 추려

놓은 것이다. 잔향계수 (Reverberation Time 또는 Reverberation Period)는 Vienna Hall 이 2.05초, Leipzig Hall 이 1.55 초, Amsterdam Hall이 2 초, Boston Hall이 1.8 초로 측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RT는 모두가 2초 이내인 것이다. ITDG (Initial Time Delay Gap)은 Vienna Hall이 12 milliseconds, 그 다음이 8, 21, 15, 23 milliseconds로 집계되었다. 한편 각 회관의 건물 크기(size)는 실재 측정치와 비례치를 계산해서 서로 비교하기 쉽게 하였다. 비례치를 보면 건물내부의 높이를 기준으로 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례치들을 검토해 보면 유명한 Concert Hall들의 숫자들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RT 또한 그러하다. 참고로 우리 KUMC Sanctuary의 크기도 첨부 하였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해 좀 더 말씀 드린다면 비례치가 1대 1.6 대 2.4가 된다. 이 비례치는 많은 회관 건축가들이나 음향 전문가들이 추천 하는 것이다. Hallelujah !!! 나는 우리 교회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최적의 크기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예배실 size는 120명을 수용 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던 것 뿐이다. 그런데 이게 웬 떡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 비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하나 나는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성도님들과 타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 건축 공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사실은 교회 건축을 책임 맡았던 이경화 장로님이 더 잘 안다. 그 밖에 나 외에도 몇몇 분들도 알고 있지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그때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데 구하는 자와 찾는 자와 두들기는 자들에게 주심을 순간순간 마다 깨닫게 해 주신다. 구약에 느헤미야처럼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 Facio Ergo Sum(나는 행동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이런 일로 해서 나는 더 우리 예배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교회 강대상 위 천정에 헛 벽부터 ceiling panel이 12feet는 제일 반사가 잘 되는 나무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보통 셀링 패널의 음의 흡수량이 빼 놓으므로 반사율이 높은 것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치된 우리 예배실의 RT는 도표에 있는 것처럼 .94 초이다. 이 숫자는 우리 교회 예배실의 부피가 30,000 cubic feet임을 생각 할 때 최적한 RT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건축을 2003년에 완료하고 입당예배를 드렸는데 또 하나 특별할 만한 일이 생긴 것이다. 성악을 전공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로마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때 특별 공연을 하였다. 그들은 여러 차례 미국 순회공연을 했다고 했다. 많은 대원들의 평이 우리교회의 음

향이 정말 fantastic하다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느꼈다는 것이다 !!! 여성들의 청아한 목소리며 남성들의 기막힌 목소리는 우리교회 음향과 잘 조화를 이루었던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실증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웠다. 아래 사진은 로마 합창단의 공연 모습이고 합창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다.



2003년 3월에 우리 교회에서 공연하는 로마 합창단원들



로마 합창단원들의 합창을 감상하는 관객들

그래서 나는 우리교회 새신자 환영회 때면 새로 온 신자들에게 꼭 이 사실을 말한다. 그러면 “김장로, 다 들 아는 소리 또 하네”한다. 나는 또 욕심(?)이 생긴다. 만약 우리들이 예배실의 특수한 ceiling panel을 24feet를 더 바꾼다면 도표에 추측한 RT가 1.3초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알버커키에 Best Sounding Hall이 탄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구태여 Vienna나 Boston까지 안 가도 알버커키에서 음악회를 가지고 이전에 들어 보지 못했던 음향

효과를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숨은 독지가의 배려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Solomon의 성전 크기를 기재했는데 우리교회와 거의 맘먹는 크기다. 그러나 RT는 3~4 초라고 추정 했다. 왜냐하면 천정이 대략 우리 것의 2 배 가 되고 내부 장식이 금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알버커키 연합 부흥회를 가졌는데 첫 날 밤 집회를 성결교회에서 하였다. 나는 그 교회 본당의 RT가 좀 길다고 느꼈다. 이성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어떤 때는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 이유를 다음처럼 설명 할 수가 있다. 우선 Figure 1 을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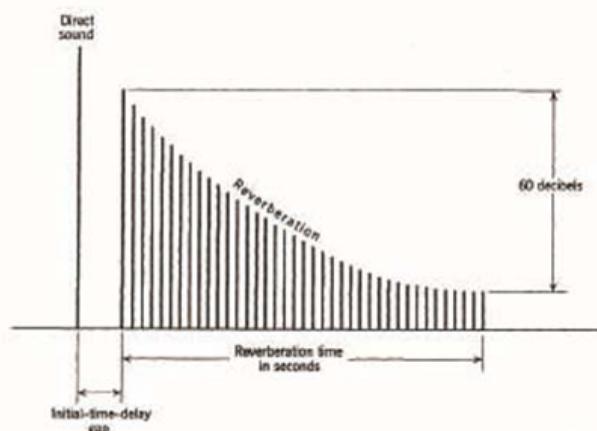


Fig. 1 Reverberation Time and initial time delay gap (ITDG)

Fig. 1

RT와 ITDG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ITDG는 연주하는 악기에서 나오는 직사파(Direct wave)와 그 다음으로 들려오는 처음 반사파 (First reflected wave)와의 지연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Vienna Hall의 경우 12 milliseconds이고 Leipzig는 8 milliseconds, 또 Amsterdam은 21milliseconds, Boston이 15milliseconds이다.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Mon~Sat
10:00~6:00

Sunday
close

여기서 RT가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언급한다면 ITDG 후에 반사되는 처음 음의 강도부터 계속 반사되며 감쇄하는 강도가 60dB(deci Bell) 까지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0dB란 음의 강도가 100만분의 1로 감소되는 point를 뜻한다.

Fig. 2에는 RT가 길 경우 (A) (예로 3초)와 짧을 경우 (B) (예로 1초)에 처음 tone하고 둘째 tone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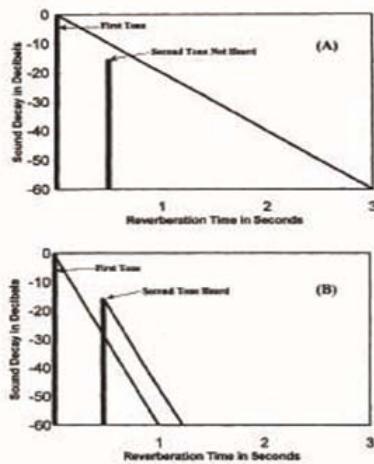


Fig. 2 Influence of a long RT (A) and a short RT (B) to musical notes

Fig. 2

A를 보면 둘째 음의 강도가 첫째 음의 강도보다 15dB(31분의 1) 적다고 할 때 RT가 길면 첫째 음이 감쇠가 안 되어 둘째 음보다 강하게 들려서 둘째 음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된다. 반대로 B는 RT가 짧아서 둘째 음이 또렷하게 들린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는 Intelligibility(명료도)라고 한다. 명료도가 좋아지면 음악은 깨끗하게 살아나고 선명하고 음색과 음향이 풍부한 음악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RT가 너무 길면 웅웅 소리가 나며 말소리며 음악 소리가 뒤섞여서 잘 분별 할 수가 없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예로서 C4(middle C, 261.63 Hz)를 fortissimo(ff)로 꽉 치고 A4(middle A, 440.00 Hz)를 pianissimo(pp)로 쳤을 때 방의 잔향계수가 너무 길면 A4 음이 잘 안 들린다는 것이다. 즉 명료도가 뚝 떨어진다는

말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 부치면 Orchestra가 연주하는 음악회에 가면 의례히 Concert master가 자기 Violin를 가지고 나오고 그때 청중들은 박수 치고 그다음에 Oboe부는 사람이 A4 note(440 Hz)를 불면 모든 현악기 가진 분들이 이 note에 자기 악기의 A4 note를 다시 tuning 한다. 이 A4를 standard로 쓰는 이유는 그 음이 온음 즉 440.00Hz이기 때문이다. 만약 A4가 440.3Hz나 399.5Hz라면 굉장히 Tuning 하는데 힘들 것이다.

세계에는 무수한 음악회관(Concert Hall)들과 Opera House들이 있다. Beranek 씨가 유명하다고 집계한 것을 보면 미국에 26개, 일본에 12개, 독일에 11개, 영국에 8개, 오스트리아에 4개, 불란서에 3개, 스위스에 3개 등이다. 우리 한국에도 10여 개가 있다고 들었지만 RT나 ITDG 측정치가 없어서 무어라 평할 수가 없다.

음의 속도가 대략 one foot/one millisecond 이므로 Vienna Hall의 경우 ITDG가 12 millisecond라는 것은 12 feet에서 음이 오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큰 Hall에서 연주하는데 바로 옆에서 연주 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상기한 음악회관들이 아주 인기가 좋은 것이다. 한번 이 음악회관에서 음악을 들어 본 사람들은 좀처럼 다른 회관을 찾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회관만 가기 때문에 충성 member가 형성되기도 한다. 한 가지 Irony한 사실은 세계 제일의 음악회관들이 전부 1900년 아니면 그 전에 건축되었는데 그때는 건축 기술이 현재와 같이 발달되지 못 했는데도 그런 명물 회관들이 만들어 졌으니 현대 건축 기술에 무슨 맹점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어떤 전문가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긴 Beam을 제작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건축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음질과 음색 등 음향효과를 잘 살려주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와! 이것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ALLSTAR REALTY
LLC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뉴멕시코 주를 아십니까?

이경화 장로

*본 글은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소개된 이경화 장로님의 글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뉴멕시코_주)

뉴멕시코 주(영어: State of New Mexico, 스페인어: Estado de Nuevo México)는 미국 남서부의 주이다. 주를 상징하는 주기(州旗)는 스페인을 상징하는 노랑색 바탕에 태양을 상징하는 지아(Zia) 인디언의 원형 무늬를 쓰고 있다. 주도는 1607년에 스페인인들이 건설한 도시인 산타페(샌타페이)이다. 산타페는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긴 주도(Capital City)이며 두 번째로 역사가 긴 도시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뉴멕시코 주의 주지사는 수잔나 마티네즈(Susana Martinez)이다.



오랫동안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이었으며, 에스파냐의 총독령인 누에바에스파냐, 멕시코의 주 (이 당시에는 콜로라도 주, 캔자스 주, 오클라호마 주, 텍사스 주의 일부도 포함하는 큰 주로, 이름도 산타페데 누에보메히코 주였다.)를 거쳐 1848년에 끝난 멕시코 전쟁의 결과로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1912년 1월 미국의 47번째 주로 편입 되었다(같은해 2월에 아리조나주가 48번째로 편입). 2차대전 중 원자탄 개발을 목적으로 한 맨해튼 계획에 의해서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가 비밀리에 세워졌고 최초의 원자폭탄 시험을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남쪽 화이트산드(White sands) 사막에서 하였으며 일본에 떨어뜨린 두개의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곳이 뉴멕시코 주 로스 알라모스라고 알려지면서 뉴멕시코 주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입시반 (포트폴리오준비반, 대생반)

강사: 박정수
서양화가, 디렉터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걸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 contact@parkfineart.com

오랫동안 스페인의 땅이었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미국에서 히스패닉계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주(46.3%:2010년 통계)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역시 9.4%로서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앵글로와 히스패닉, 원주민 인디언의 문화가 섞여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있다. 가장 큰 도시는 앨버커키로 주변 위성도시를 포함한 인구는 907,775명(2011년 통계)이 된다. 뉴멕시코 주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되는 인구가 앨버커키 지역에 살고 있는 셬이다.

뉴멕시코 주 경계 고속도로 간판, 멕시코 음식에서 필수인 고추(Chili)가 그려져 있다. 뉴멕시코를 상징하는 질문은 "RED OR GREEN?"인데 이는 멕시코 음식 식당 종업원에게서 자주 듣는 빨간 고추와 녹색 고추 소스 중에 하나를 택해달라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산타페와 앨버커키와 벨렌 사이를 운행하는 뉴멕시코 레일러너(Rail Runner)열차

지리

북쪽은 콜로라도 주가, 동쪽은 오클라호마 주와 텍사스 주가, 서쪽은 애리조나 주가, 남쪽은 텍사스 주 및 멕시코 국경에 접해 있다. 뉴멕시코 주 동쪽 경계는 오클라호마 주에서 서경 103도, 텍사스 주에서 서경 103도의 5 km(3마일) 서쪽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315,194 km² (121,598 sq. miles) 한국(남북한 전체) 면적의 1.4배가 된다.

KOREAN B.B.Q HOUS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뉴멕시코 땅이 별명으로 “매혹의 땅(Land of enchantment)”으로 불리는 까닭은 먼저 다양한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량한 사막과 숲이 올창한 높은 산들이 대조적이며 단층으로 인해 다양한 색깔의 들어난 지층과 메사(Mesa)들은 이곳을 찾는 여행객을 매혹 시키고 있다.

뉴멕시코 북쪽은 로키산맥(Rocky Mt.)의 끝 부분이 되는 곳이어서 산악지대가 된다. 가장 높은 산은 타오스 북쪽에 있는 상그레 더 크리스토(Sangre de Cristo)산에 속하는 웨일러피크(Wheeler Peak)로서 4,011m(13,161ft) 높이가 되며 알버커키 동편에 있는 샌디아산(Sandia Mountains)은 3,255m(10,678 feet) 높이가 된다. 2750m의 백두산 보다 500m정도 더 높다. 알버커키 도시는 해발 1,619m(5,312ft)되는 고원지대에 있다.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가 있는 지역의 헤이메즈(Jemez) 산은 화산으로 인해 생긴 산인데 그 분화구 함몰로 된 칼데라(Caldera)는 직경이 19 km(12마일)가 되어 세계에서 제일 큰 칼데라가 된다.

뉴멕시코 남쪽은 평지가 많고 건조한 사막이 많다. 흰모래언덕의 장관을 이룬 화이트 샌드 네셔널 모뉴먼트(White Sands National Monument)와 축구 경기장만한 공간이 있는 지하 동굴에 오묘한 종 유석의 예술품을 볼 수 있는 칼스베드 동굴(Carlsbad Cavern) 국립공원이 이 지역에 있다. 콜로라도 주 로키산맥에서 시작해 내려오는 리오그란데 강(Rio Grande)은 뉴멕시코 주의 중앙의 사막 지대를 흘러 텍사스와 멕시코의 경계로 내려간다. 이 강은 북미에서 4번째 가는 긴 강이다. 뉴멕시코에는 19개의 인디언 푸에블로(Pueblo는 스페인어로 부락이란 뜻)가 있는데 많은 푸에블로가 리오그란데 강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 리오그란데 강의 상류쪽에 있는 타오스(Taos) 푸에블로는 관광객에게 잘 알려진 푸에블로다. 리오그란데 강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가 여러개가되는데 그중에 하나인 코치티 호수(Cochiti Lake)가 알버커키 북쪽에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땜의 기리가 5.5마일이나 되어 세계에서 11번째 되는 긴 땅이된다.

기후

주 전체가 고원지대로 되어 있어 위도로는 남쪽에 속해도 더위가 심하지 않고 건조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연중 300일 이상 구름이 끼지 않은 화창한 날씨가 된다. 따라서 강우량은 년 350 mm(13.9인치)로 극히 낮다. 반 이상의 강우량은 여름 7, 8월에 내린다. 산이 많은 북부 지대는 비와 눈이 보다 많이 내려서 숲으로 덮힌 국유림이 많다. 7월 여름의 낮 평균 최고 기온은 저지대의 경우 36°C(97°F), 고지대의 경우 26°C(70°F) 내외가 된다.

교육



뉴멕시코 대학교 캠퍼스 내의 건물 (George Pearl Hall)



소코로 60마일 서쪽에 있는 VLA(Very Large Array) 안테나. 오페레이션 센터는 소코로의 광산 공과대학 캠퍼스에 있다.

**Break out of your shell...
EXERT CONFIDENCE!**



**Watch them transform
and become more:**

- Self-Confident
- Flexible
- Disciplined
- Coordinated

Give your kids the edge they need to succeed while having great fun.

Dynamic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 B - 35
(505) 271-2000
New Member in Town
Master Jaeshin CHO
CALL NOW !!!!
I'll honor all previous Y'kim's,
pride tkd students

**Special
Introductory class
\$29.95
FREE Uniform**

Expires on June 30, 2010



뉴멕시코의 큰 도시에 있는 주립대학 만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주립대학은 이 밖에도 세 개가 더 있다. 각 대학의 학생 수와 한 학기 등록금을 아래에 표시하였다.(2011년 기준, 팔호안의 액수는 타주의 학생일 경우를 말한다.)

* 뉴멕시코 대학(University of New Mexico)
앨버커키(Albuquerque)에 있으며 1889년에 설립되었다. 학생수는 34,674명으로 뉴멕시코에서 가장 큰 대학이다. 학부 등록금은 \$5,809 (\$19,918)이다.

* 뉴멕시코 주립대학(New Mexico State University)

라스크루시스(Las Cruces)에 있으며 두 번째로 큰 대학이다. 1888년에 설립되었고 학생 수는 18,497명이다. 등록금은 \$2,913(\$3,086)이 된다.

* 뉴멕시코 광산공과대학(New Mexico Institute of Mining and Technology)

소코로(Socorro)에 있는 작은 규모의 학교로 전문성을 잘 살려서 발전되고 있는 학교다. 1889년 설립되었고 학생 수는 1921명이며 등록금은 \$2,651(\$7,877)이 된다.

* 아메리카인디언미술대학(Institute of American Indian Arts)

샌타페(Santa Fe)에 있는 인디언 미술 분야의 특수적인 학교로 1962년에 설립되었다. 학생수는 250명이며 등록금은 \$1,440(\$2,880)이 된다.

사립대학으로 아래의 대학이 있다.

* 산타페 대학(Santa Fe University of Art & Design)

1859년에 설립된 샌타페(Santa Fe)에 있는 사립대학이다. 학생 수는 450명이며 등록금은 \$13,998이다.

문화/예술



산타페 미술 박물관: 푸에블로 리바이벌 스타일의 건축양식이 이지역 건물의 특징이다.

뉴멕시코는 인디언과 히스패닉과 앵글로의 세 가지 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런 다양성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뉴멕시코의 독특한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에 1900년 초기 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것이 이곳 문화를 더 풍성하게 했다.

미술분야: 산타페(샌타페)에서 팔리고 있는 미술품의 거래액수로 보면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세번째가 산타페가 되어 미국의 3대 미술 시장 안에 들어간다. 300개가 넘는 갤러리(Gallery:화랑)가 있다. 타오스도 미술가가 많은 곳으로 갤러리는 80여 개가 있다. 앨버커키에도 100여개의 갤러리가 있고 뉴멕시코 남쪽 실버시티(Silver Cty)에도 30개의 갤러리가 있다. 뉴멕시코에서 활약해온 화가로 뉴욕에서 이주해온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그리고 인디언 화가인 알시 골만(R.C.Gorman)이 유명하다. 사진작가 안셀 애덤스(Ansel Adams)는 자주 이곳을 방문하며 작품활동을 했다. 현재 활동중인 한국인으로 박영숙 서양화가는 앨버커키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귀분

- Office :
505-828-1366
- F a x :
505-929-0772





Armani Mansour
Licensed Sales Producer
The Keller Agency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24-Hour
Customer Service

문학분야: 1959년 MGM 제작 벤Hur(Ben-Hur)란 영화는 1880년 출간된 문학작품 『벤Hur: 그리스도의 이야기』(Ben-Hur: A Tale of the Christ)를 영화로 만든것이였다. 이 소설은 쓴 루 월리스(Lew Wallace)는 뉴멕시코 주지사(뉴멕시코는 연방에 가입전이다)까지 역임 한사람이다. 미술가와 마찬가지로 작가들도 많이 뉴멕시코로 이주해와서 산타페만도 현재 150명의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 황갑주 시인은 뉴멕시코에 1970년대에 잠시 거주했고 이곳 사막을 노래하는 많은 시를 발표했다.



산타페 오페라 건물 사진

음악분야: 산타페 오페라(Santa Fe Opera)는 야외 음악당 같은 분위기를 주는 건축 설계가 특이하다. 여름철 7-8월에만 공연한다. 5개의 오페라를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며 병행해서 공연한다. 입장권은 언제나 매진되는게 보통이다. 합창을 부를 40명 가량의 멤버는 매년 성악전공 학생중에서 뽑게 되는데 매년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은 약 1400명 정도라 한다. 엘버커키에서 열리는 큰 연주회는 뉴멕시코 음악대학의 폴죠이홀(Popejoy Hall)에서 대부분 공연된다. 엘버커키의 중, 고등 학생들로 구성된 네개의 관현악단은 음악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음악 교육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뉴멕시코 심포니(New Mexico Symphony Orchestra)는 79년 동안 뉴멕시코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이 였다. 2011년 4월 재정난으로 연방파산법 제7장(Chapter 7 Bankruptcy)을 발표하고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인디언의 예술품: 매년 8월 3번째 목요일에 산타페에서 2일간 열리는 산타페 인디언 시장(Santa Fe Indian Market)은 1,000여명의 인디언 미술가들이 출품하는 원주민 인디언의 최대의 예술품 전시장(Art Show)이 된다. 10만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운집된다.

관광/공원



화이트 샌드 내셔널 모뉴먼트: 모래언덕과 유카(Yucca). 유카꽃은 뉴멕시코 주를 상징하는 꽃이다.



반델리어 내셔널 모뉴먼트: 큐웨니 유적지



챠코 문화역사공원: 푸에블로 보니다



텐트락 내셔널 모뉴먼트

매혹의 땅이란 별명이 의미하는 그대로 관광 할 만한 경치 좋은 국립공원과 내셔널 모뉴먼트가 많다. 내셔널 모뉴먼트(National Monument)는 미국의 유적 보호법에 의거 대통령이 지정한 국립공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공원이다. 뉴멕시코 주에는 내셔널 모뉴먼트가 12곳이나 되어 미국에서 애리조나주 다음으로 모뉴먼트가 많은 주가 된다. 넓은 지역의 산과 숲이 국유림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하이킹, 캠핑, 스키등 야외 리크리에이션을 즐길수 있는 곳이 많다. 중요한 공원과 모뉴먼트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Carlsbad Cavern National Park)

뉴멕시코 주 남동쪽 칼스베드(Carlsbad) 도시 근방에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한 지하동굴이 있는 국립공원이다. 공원의 지하에 있는 석회암이 수천만년 동안 지하수에 녹아 동굴이 형성되었는데 이 지역에는 약 300개의 동굴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116개의 동굴이 공원 안에 있다. 그중에서 몇개의 동굴만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것이다. 193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95년 UNESCO 세계자연유산(World Heritage Site)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매년 이곳을 찾아오는 여행자수는 40만명内外가 된다.

시세이도 화장품
운상옥 (Beauty Advisor)
H: 890-4018
B: 883-5900
SHISEIDO
Dillard's 백화점
2100 Louisiana Blvd Ne Ste 155
The Esp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

화이트 샌드 내셔널 모뉴먼트(White Sands National Monument)

흰 석고 모래의 높은 파도가 물려오는듯한 경치를 볼수있는 화이트샌드(White Sands)모뉴먼트는 뉴멕시코 주 남쪽 알라모고르도(Alamogordo)시 근처에 있다. 일년동안에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는 47만명 내외로 뉴멕시코 주에 있는 공원중에서 최고로 인기있는곳이다.

반델리어 내셔널 모뉴먼트(Bandelier National Monument)

서기 1150년부터 1,500년까지 인디언이 거주했던 건물의 집터가 남아 있는 곳이다. 큐웨니 유적(Tyuonyi Ruin: “Tyuonyi”的 발음은 “QU-weh-nee”로 해야 된다)으로 불리는 이 집단 거주건물은 원형의 구조로 지은 옛날 푸에블로 인디언의 아파트 건물로 보아도 될것이다. 로스 알라모스 근처 헤이메즈 산속에 있다. 매년 23만명 내외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아 온다.

차코 문화 국립역사공원(Chaco Culture National Historic Park)

서기900년부터 1150년까지 아나사지 인디언의 찬란한 문화가 꽂피웠던 유적지다. 4-5층구조의 대형 전물을 사암들을 쌓아서 지었던 유적이 많이 있다. 푸에블로 보니토(Pueblo Bonito)는 651개의 방과 40개의 키바(Kiva)를 가진 가장 큰 건물 유적지가 된다.

카샤카투웨 텐트록 내셔널모뉴먼트(Kasha-Katuwe Tent Rocks National Monument)

헤이메즈산(Jemez Mt.)밑에 있는 화산재가 굳어져서 된 응회암의 후두(Hoodoo) 가 경관을 이룬 곳이다. 인디안의 티피(Tepee)천막(텐트) 같은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텐트락(Tent rock)이란 이름이 붙었다.

죽 개업

Hair & Co.
5901 Wyoming Blvd NE Suite T
Albuquerque, NM 87109
(505) 797-8087

(New Clients 15% Off)
Hair Cut & Style
Shampoo & Style
Conditioning Treatment
Color service
Foil Highlight or Lowlight
Permanent Wave & Style
Permanet Hair Straightening
Waxing

역사

옛날의 뉴멕시코는 아나사지(Anasazi) 인디언들만이 살던 땅이였다. 서기 800년에서 1300년 사이에는 아나사지 인디언이 뉴멕시코 서북부에 있는 쟁코 케년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해서 쟁코문명(Chaco Culture)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1276년부터 1299년 사이에 있었던 심한 가뭄으로 그들은 쟁코 케년의 도시를 버리고 리오그란데 강가로 내려와서 소집단을 이루는 푸에블로(Pueblo)를 형성해서 농사를 위주로 하면서 흘어져 살게 되었다. 서기 1500년경에는 캐나다 지역에서 살던 나바호(Navajo)와 아파치(Apache) 인디언이 뉴멕시코로 이주해 내려왔다. 나바호인디언은 리오그란데강의 서쪽지역에 정착했고 아파치 인디언은 뉴멕시코의 남부, 동부에 흘어져 살았다.

스페인의 정복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스페인은 지금의 멕시코 시티(Mexico City)지역을 정복하여 식민지인 나라를 만들어 이름을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 영어로 번역하면 뉴스페인(New Spain)이라 하고 총독을 보내어 다스리게 했다. 뉴멕시코 쥬니 푸에블로 지역에 시볼라(Ciola)라고 하는 금으로 장식된 도시가 있다는 거짓 소문을 듣고 1540년 코로나도(Coronado)장군을 뉴멕시코의 쥬니 인디언이 사는 곳을 답사하게 했다. 그들은 헛 소문을 확인한 뒤에도 서쪽으로 탐험을 계속해서 그랜드 케년과 콜로라도 강을 발견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뉴멕시코 개척 원정은 1598년 스페인 왕 필립2세의 명에 의해서 오냐테(Onate)장군의 원정팀으로 시작되었다. 리오그란데강 상류 지역에 스페인 이주민을 정착시키고 인디언들에게 기독교를 선교하는 활동도 하게 했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를 거부하는 인디언의 세력도 컸다. 아코마(Acoma)인디언 들과의 갈등으로 10여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죽게 되자 보복으로 25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그들의 발목 하나를 잘라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1610년 스페인 사람들은 상그라데그리스도 산 밑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수도로 정하였다. 이름을 산타페(지금의 샌타페이:Santa Fe)로 지었다.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수도(首都:Capital City)가 이때 된 것이다.

Fuji Yama
후지 야마 일식
Japanese Restaurant

50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NM 87108
 (505) 265-9774

Fuji Yama
 Japanese Restaurant

1819년 당시 뉴스페인의 영토: 뉴멕시코의 수도는 산타페였다. 뉴멕시코 동편 텍사스는 뉴필립핀이라고 불렸다.



인디언의 반란

스페인 사람들은 뉴멕시코의 인디언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썼다. 인디언은 그 반발로 1680년 8월 10일 일제히 봉기하여 성당을 불사르고 사제를 죽이는 반란을 일어켰고 이로 인해 400여명의 스페인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살아 남은 사람들은 모두 지금의 멕시코 국경 지역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몇년뒤 인디언의 지도자가 죽고나자 스페인 사람들은 다시 이땅을 손쉽게 무혈로 되찾고 만다. 1692년부터 뉴멕시코는 다시 스페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식민 정책을 보다 더 온전한 정책으로 바꾸었고 기독교도 인디안에게 많이 전해지게 되었다.

멕시코의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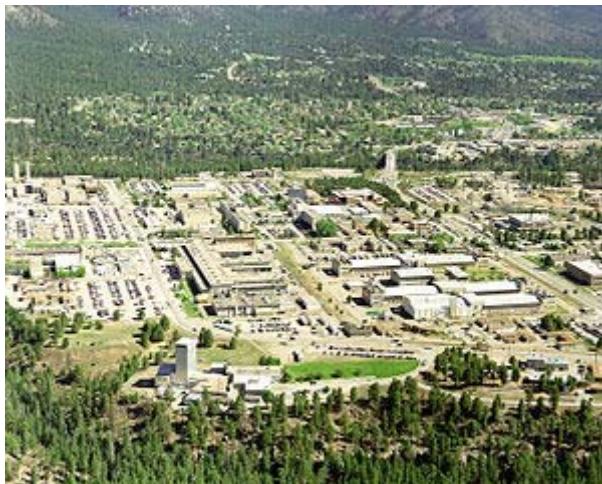
스페인의 지배 하에서 200여 년이 지난 1821년, 스페인의 통치 아래 있던 뉴스페인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멕시코라는 이름으로 독립 국가를 선언하게 된다. 따라서 뉴멕시코는 신생 독립 국가인 멕시코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25년밖에 안된다. 1846년 멕시코와 미국간의 영토 분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2년뒤 전쟁이 끝나고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Treaty of Guadalupe Hidalgo)에 의거 이곳 뉴멕시코는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미국 영토로서의 뉴멕시코

미국의 영토가 된 이후 이곳 인디언은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나바호 인디언과 미국인 서부 개척자 사이에 마찰이 생기자 갤럽(Gallup)지역에 살고 있던 나바호 인디언을 300마일 떨어진 폐코스강이 있는 포트섬너(Fort Sumner)로 강제 이주 시킨 일이 있

었다. 이 계획을 반대한 나바호 인디안은 완강히 맞서 싸우다가 캐니언디셰이(Canyon de Chelly: 애리조나 주에 있음)에 도주하여 숨어 버리자 키트 칼슨(Kit Carlson) 대령이 지휘하든 군인들은 민가를 불태우고 가축을 잡아 죽이는 보복을 가해서 나바호 인디언의 항복을 받아 내고 강제 이주를 하는 장거리 행진, 통워크(Long Walk)를 하게 하였다. 300마일(480km) 되는 먼길을 겨울철에 8-9000명의 인디안은 걸어서 이동하는 가운데 200여명이 기아와 추위로 인해 죽었다. 새로 마련한 인디안 보호 구역에서 농사를 짓고 새로운 개척을 하려 했으나 토지와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속 기아와 질병으로 많은 인디안이 죽어갔다. 결국 4년 뒤 1868년 미국 정부에서는 이 계획이 잘못 된 것임을 인정하고 나바호 인디안을 본래 고향, 뉴멕시코 서북부로 돌아가게 허용했다.

뉴멕시코는 신개척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다. 카우보이를 위시해서 광부, 철도 공사 노동자, 노름꾼과 각종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범죄도 늘어나 무법천지가 되는 듯 했다. 미국의 어느 장군은 조크로 말하길, ‘미국은 멕시코와 다시 전쟁을 해서 골치꺼리의 뉴멕시코를 도로 멕시코가 가져가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빌리더키드(Billy the Kid)는 이 당시 무법의 서부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전해오고 있다.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와 주변의 경치

미국 핵증국 연방가입

1912년 1월 드디어 뉴멕시코는 미국의 47번째의 주로 승격된다. 미국 영토가 된지 62년 만이다. 한 달 뒤에 아리조나가 48번째 주로 들어와서 미국 국기 성조기의 별이 1959년 알래스카주가 가입될 때까지 47년 동안 성조기의 별이 48개로 되어 있었다. 뉴멕시코의 자연 풍경에 매력을 느끼고 많은 화가, 사진작가, 저술가 등이 산타페와 타오스에 몰려왔다. 뉴멕시코의 좋은 날씨가 폐결핵 치료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요양원 시설이 앨버커키시에 들어났고 인구도 불어났다. 넓은 평지가 많은 이곳은 공군기지를 만드는데 좋은

조건이 되여서 이차대전 시기에 세 개의 공군기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화이트샌드 미사일 시험장(White Sands Missile Range)도 생겼다. 협한 계곡이 있는 산속에 비밀유지하기 좋은 자리 조건을 가춘 로스 알라모스(Los Alamos)에는 원자탄 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생겼고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남부 사막에서 최초의 원자탄을 터뜨리는 실험을 하여 핵시대의 문을 연 것도 뉴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이다.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주 사막에서의 최초의 핵폭탄 시험에서 찍은 화염.

이차대전 때에 참전 용사들 중에 나바호 인디안은 암호병으로 활약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미국군은 일본 사람들이 나바호 말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나바호 말을 암호에 대신해 써서 미국군의 기밀 유지를 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때도 뉴멕시코는 큰 기여를 했다. 뉴멕시코 주에서도 많은 젊은이가 한국전에 파병하여 싸웠는데 그중에서 189명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갤럽(Gallup)에 사는 일본인 2세인 히로시 미야무라(Hiroshi Miyamura)씨는 한국전쟁에서의 공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다.

뉴멕시코는 인디안, 스페인 그리고 앵글로 문화가 혼합된 타주가 갖지 않은 다양한 색깔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 지금도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는 주가 되고 있다.

경제

뉴멕시코 주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생산과 관광 수입 및 연방 정부에 의한 사업 자금 지출이 뉴멕시코 주의 경제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주 정부는 새로운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새로 시작하는 기업체에게 세금의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홀로만 공군 기지에 있는 F-22 랩터(Raptor) 전투기.



영화 제작을 위해 신축된 알버커키 스튜디오.

경제지표

뉴멕시코 주의 주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은 762억불이 된다. 2007년 개인당 총수입은 \$31,474로서 미국 랭킹은 43위로 뒤쳐진다. 2005년도 통계로 극빈자의 비율은 전체 주민의 18.4%였다. 주정부 관광국의 보고에 의하면 2006년도 관광으로 인한 수입은 18억 불이였다. 2011년도 7월 기준으로의 실업률은 6.8%로 비교적 낮은 비율이다. 동일 보고서에 의하면 캘리포니아가 11.8%, 아리조나가 9.3%로 나와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뉴멕시코 서북부의 산환분지(San Juan Basin)와 동남부에 있는 분지에 풍부한 매장량의 유전이 있다. 천연가스의 매장량으로 볼 때 미국에서 1위이다. 2006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석유 생산의 3.4%, 천연가스 생산의 8.5%, 액체가스 생산의 10.2%가 뉴멕시코에서 되었다.

연방정부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세 개의 공군 기지, 즉 커트랜드(Kirtland), 홀로만(Holloman),

캐논(Cannon) 공군 기지와 화이트샌드 미사일 시험장(White Sands Missile Range),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 샌디아 국립 연구소를 통해서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로 인한 고용 효과도 대단하다. 커트랜드 기지가 2만3천명, 홀로만 기지는 1만7천명,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가 9천명, 샌디아 연구소가 8천 4백명이 된다. 뉴멕시코에서 연방정부에 들어가는 세금 전액의 2.03배의 자금이 도로 뉴멕시코로 되돌아 오는데 이 비율은 50개 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영화

주 정부에서는 새로운 기업체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로 지원해 왔다. 2003년 이후 영화 제작사가 많이 들어온 것은 이러한 주정부의 노력의 결과다. 2007년도 보고에 의하면 85개의 영화가 뉴멕시코에서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12억불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첨단 산업

가장 큰 규모의 산업체로는 6천8백명의 직원을 가진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인텔(Intel Corporation)이 있다. 이어서 중소 규모의 첨단과학 분야의 회사가 많이 있다. 몇몇 기업체를 예로 들면 CVI 레이저(Laser), 레이티온 케이텍(Raytheon K-Tech), 허니웰(Honeywell), 굳리치(Goodrich),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 헐렛팩카드(Hewlett-Packard), 엠코(Emcore) 등이 있다.

NEW KOREA TRAVEL SERVICES

새한여행사

CST #2028850

당신의 출발을
가볍게 해드립니다.
여행은 새한여행사의
미소로 시작됩니다.

대표 전화 (213)383-4988

가장싼비행기! 신속한 서비스!

항공권	호텔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항공권 도매가격 • 한국인 가장 편리한 서비스(한국인·미민) • 동경, 홍콩, 베트남, 마닐라, 태국인 가장 저렴한 항공권 • 전유럽 가장 쓸 으뜸 항성 보유 • 전유럽 기차표 • 미국내선 가장 저렴한 항공권 • 남미미국 아주 저렴한 항공권 • 단체 특별할인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필요한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라, 워커힐, 라마다 런던호텔 호텔대리점 및 전세계 호텔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관광 • 하와이관광 • 성지순례 • 신혼여행 • 크루즈 관광 • 미국내 드론 · 증 · 서부 경기관광 • 남미관광 · 디아프Tour Packages • 중국 · 베트남 · 소련 비자대행

새한여행사는 전세계 모든 항공사와의 공인 대리점입니다.

KOREAN AIR ASIAN AIRLINES CATHAY PACIFIC THAI AIRWAYS AIRBUS REPORTING CORPORATION TATA CLIA ASTA AIRTRUST AIRFRANCE

타주무료전화 1-(800)421-5489 FAX(213)383-6752

27 W. OLYMPIC BLVD., L.A., CA 90001 (홀리 빌 · 뉴욕프레스, 나라은행 전화번호)
Website: www.newkoreatravel.com E-mail: newkoreatravel@yahoo.com

“잃어버린 영성을 찾아서”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Sola Scriptura)란 구호를 외치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에 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알맹이와 껌데기가 뒤바뀐 세상이 되었습니다. 알맹이는 성경본문이고 껌데기는 학문, 교리, 신조, 간증, 예화 등입니다. 껌데기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껌데기를 알맹이로 착각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잠시 껌데기를 내려놓고 알맹이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본질인 말씀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외적인 성장과 외적인 활동에 치중하면서 내적인 성숙을 상실했습니다. 기독교의 깊은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보다는 교리별 주제별에 따른 성경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리나 주제에 따라 성경본문을 여기저기에서 짜 맞추어 놓은 가르침에 익숙해졌습니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가기 보다는 성경 안에 이 책 저 책에서 필요한 구절들만 뽑아서 엮어놓은 가르침에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전혀 달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 여러 교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서로 다른 교리들이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큰 문제는 성경을 직접 대면하여 스스로 진리를 찾기 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받아먹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본문을 읽으면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기보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리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집중해서 천천히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묵상하고 진리를 찾아내려는 수고는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수고를 누군가 대신해주고 그저 그 결과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수동적인 크리스천들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참된 능력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 번이나 통독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단들이 성경본문을 들이대며 설명을 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단순히 쫓아내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기독교의 참된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감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묵상 수련법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묵상 수련법을 “렉찌오 디비나”(Lectio Divina)라고 불렀습니다. Lectio(렉찌오)는 라틴어로 “독서”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Divina(디비나) 역시 라틴어로 “신성한, 영적인”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찌오 디비나”는 “신성한 독서” 또는 “영적인 독서”란 말입니다. 깊은 영성을 위해 성경 본문을 신성한

마음으로 읽어가는 수련법이기 때문에 “렉찌오 디비나”를 한글로는 “영성 독서”라고 부릅니다.

이 “영성 독서”的 기원은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은 아내가 될 리브가를 처음 맞게 되는 그 시각에 “묵상을 하기 위해서”(ad meditandum) 들에 나가 있었습니다. 시편 1장 2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묵상하는”(in lege eius meditabitur)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깊은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meditation)하던 구약의 “영성 독서”的 전통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전승되었고 이후 오랫동안 수도원 내에서 실천되어 왔습니다. 본래 기독교인들은 매일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권위를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영성 독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쉽고 편한 것만 쫓는 세상에 물들어서 성경 안에 진리를 밝혀주는 “영성 독서”(Lectio Divina)의 수고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BBVA Compass
뉴멕시코 주에서 은행대출이
필요하십니까?
한국말을 하는 김미경씨를
만나보세요.**

**Think getting a mortgage should be
easy? So do we.**

Here's an overview of what we can offer you:

- * Professional Program financing up to \$1 million with low down payment for Doctors, Dentists, CPAs and Attorneys.
- * First Time Home Buyer Program make no payment for 3 month, low down payment, and pay no origination or other lender fees
- * Government Loans FHA and VA loans
- * Construction Loans OneConstruction/Perm, Renovation/Perm and Lot Loans
- * Primary residence and second home financing, including noncondos (no condotels)
- * Variety of repayment terms available
- * Super Jumbos financing available up to \$5 million
- * Foreign Nationals (nonresidents) financing available up to \$1 million USD on single family residences and condominiums'
- * Convenience apply onlin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n addition to simplicity and options, at BBVA Compass you'll get competitive rates and outstanding service. So whether you're buying your first or fifth home, getting your next mortgage will be easier than you ever imagined at BBVA Compass.

**Mi Kyong Kim Mortgage Banking Officer
전화번호 505-206-9963
mikyong.kim@bbvacompass.com
www.bbvacompass.com/mortgages/mkim
NMLS# 51256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i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주택용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BQ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2302 Morris NE, ABQ (505-453-5461)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96-0336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BQ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김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d,
NM 87110
(505)883-3112

종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 #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i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8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1,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تون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تون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사고/팔고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회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리아미드 (나일론)PA6
PA66 구합니다 폐기되는
카페에서 작은 샤링가루
.펠렛 PA6 PA66
설유스크랩 취급하시는분
또는 구해주실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양은 얼마든지
관계없이 구매합니다

정보마당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우표 값이 61센트에서 64센트로 올랐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1년 동안

집에서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본인 이름 집 주소

64센트 우표 12장

또는 8불 짜리 check를

payable to "KUMC"로 써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this
journal by mail, send by mail
your name and address to
following address with your \$8
check payable to KUMC)
To: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4 cent 우표
붙인 후 밖으로
집어서 발송

To: